

10개리를 관할하는 구천면은 조선 성종때 이곳에 살던 명신 판중추부사 귀천 어효침의 호를 따라 붙여졌다. (구천면 : 곡교, 고덕, 상일, 하일, 명일, 길, 둔촌, 풍납, 성내리 등 10개리 관할, 龜川 이 九川으로 변함)

1963. 1. 1 법률 제1172호로 서울시 행정구역이 대대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은 중대면, 언주면, 대왕면 일부와 함께 성동구로 편입돼 천호출장소가 5개 행정동(구천동, 선린동, 암사동, 성내동, 천호동)을 관할하다가 1975.10. 1일에 강남구로 편입된 후 마침내 1979.10. 1일에 18개 동을 관할하는 강동구가 탄생되었다. 그 후 88서울올림픽 개최 직전인 1988. 1. 1일에 강동구의 일부를 송파구로 분구하고 24.58km²의 면적에 21개 행정동(9개 법정동)을 관할하는 지방자치구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, 맑고 푸른 전원도시로 조성된 강동은 많은 선현들이 살았던 곳으로 옛 지명 등 문화유산의 흔적이 남아 있는 역사적인 고장이다(강동구 홈페이지 참조).



<그림 18> 강동구 현황(출처 : 강동구)